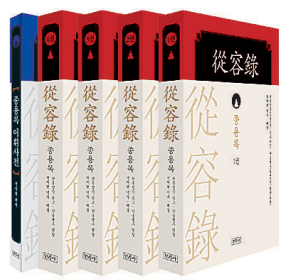


“선수행자들 마지막 관문”... 할과 방 없이 섬세한 설명만



종용록
석지현 역주해설
민족사 펴냄
전세트 5권
18만 5천원

《종용록(從容錄)》은 《벽암록(碧巖錄)》과 더불어 선(禪) 어록의 정수를 담고 있는 공안송고평창집(公案頌古評唱集) 즉 공안에 대한 송과 평론, 주석, 해설서이다.

이 책은 《벽암록》보다 100년 후(1224년)에 출간된 것으로 선문의 명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종용록》의 원제는 《만송행수평창선동각화상송고종용암록》이다. 북송말 남송초 천동정각(1091~1157)선사가 옛 공안 100칙을 엄선했다 공안 하나하나마다 송(頌)을 읊었는데, 이를 《천동백척송고》라 한다. 이 책에 만송행수(1196~1246)선사가 시중(示衆), 착어(着語), 평창(評唱)을 붙여 비로소 《종용록》이 완성됐다.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은 이 책이 만송행수가 연경 보은원에 종용암을 짓고 은거 중일 때 칭기즈칸 행정 비서관이자 만송행수 스님의 제자제자인 아을초재의 간청에 따라 집필한 것이다. 제작 당시 만송이 머물던 암자 이름을 따서 《종용록》이 되었다.

지현 스님은 “아을초재는 만송 선사 문하생으로 3년간 수행하며 인가를 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전쟁터에서도 수행자의 기복을 잃지 않기 위해 스승인 만송행수 스님에게 7차례나 서신을 보내 《천동백척송고》의 평창을 요청했고, 만송행수가 이를 받아들여 《종용록》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을초재는 잔혹한 전장서 대량 살상을 막고 몽골인들에게 법도와 예절, 문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던 인물인데 이는 《종용록》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을초재는 한마디로 《종용록》을 기획 완성한 공로자이자 서문을 쓴 사람입니다.”라고 《종용록》 탄생화를 전했다.

아을초재는 《종용록》 간행 이유를 서문을 통해 두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는 이 좋은 원고를 혼자서만

보기가 아깝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이 법업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였다고 한다.

7년여 작업 끝에 최근 《종용록》을 완역해 출간한 지현 스님(오른쪽 사진)은 “‘지혜의 칼’인 벽암록과 더불어 ‘훈훈한 봄바람’으로 비견되는 종용록을 곁들이지 않으면 완벽한 선자(禪者)라 할 수가 없다. 특히 우리나라 선승들은 사선으로만 알고 있는 목조선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종용록을 읽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벽암록》에 비해 100년이나 늦게 세상에 나왔지만 내용이 온화하고 부드럽고 중국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 총서인 《종용록》이 한국불교에서 낯설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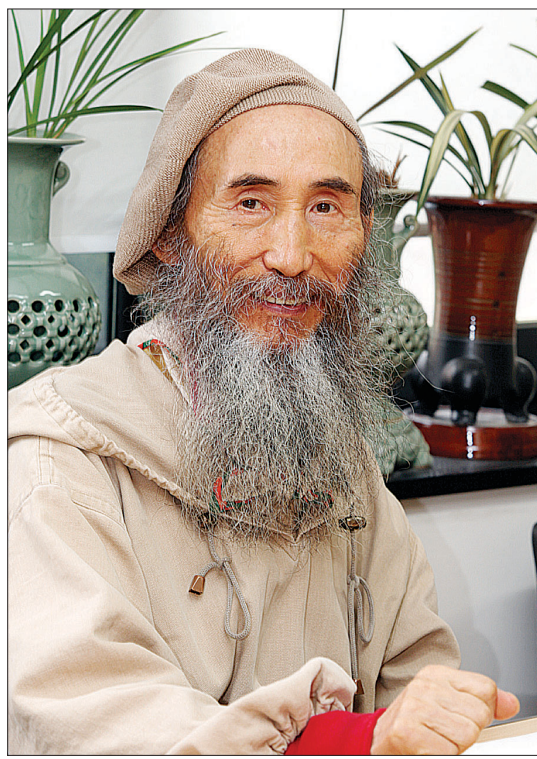
지현 스님은 “한국불교가 간화선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설파가 마땅치 않은 현실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난해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반인은 물론, 선승들도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텍스트입니다. 당송 시대 사람들이 쓰던 사투리와 속어로 뒤섞여 있기 때문이죠. 당대 사람들의 구어체와 생활 용어들을 알기 위해 당송 시대 속어사전의 원전을 구해 공부해야 했습니다.

또한 제가 번역하면서 가장 애를 먹은 부분인데 《종용록》속에는 많은 중국의 고사(故事)가 있어서 더욱 난해하게 느껴집니다. 고사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됩니다. 특히 중국 고사는 유교, 도교, 민간신앙까지 두루 알아야 번역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오죽하면 《종용록》을 중국 제자백가 사상이 집약된 지혜의 보고라 말하기도 합니다.”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이를 증명하듯 《종용록》서 시중, 착어, 평창을 쓴 만송행수 스님은 불교 외에 유교와 제자백가 사상에 정통했다. 따라서 선어록에 대한 이해가 깊고 중국 사상과 한자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면 《종용록》의 문장들이 품고 있는 숨은 뜻을 읽어내기는 매우 어렵다.

《종용록》이 《벽암록》과 더불어 선 수행자들의 필독서임에도 제대로 된 번역서조차 없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언어감이 뛰어난 시인이기도 한 지현 스님은 그동안 선시와 선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에 전



《종용록》, 칭기즈칸 측근 아을초재가 펴낸 벽암록과 쌍벽...목조선 수행법 정수 담겨 목조선과 간화선 수행법 차이 한눈에 조망

념했다. 원문에 토를 달고, 각 단락마다 상세한 해설과 주(註)를 달았다. 그리고 《종용록》서 언급된 이야기들의 출처와 고사성어의 의미를 고증해 밝혔다. 책의 마지막 권은 어휘사전으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당송 시대의 속어와 선어를 알 수 있도록 배려했다.

지현 스님은 “공안집이나 선어록은 속어를 모르면 완전히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이 어휘사전 한 권만 있으면 《종용록》에 나오는 문어체와 구어체 등 모든 용어를 풀이하고 해설 가능하므로 선을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고 말했다. 목조선은 좌선수행을 통해 우리 본성에 이미 내재

한 깨달음을 현실화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목조선 수행이란 ‘내재된 깨달음을 증진하는 작업’이다. 이때 공안은 ‘수행 깊이를 측정하는 계기판’이다. 반면 간화선은 공안을 ‘깨닫기 위한 수단 또는 도구’로 보고, 좌선보다는 공안타파(公案打破), 즉 ‘공안참구를 통한 깨달음’을 강조한다. 이런 간화선 수행의 최고 교과서가 바로 《벽암록》이다.

그러나 목조선서 공안타파란 좌선수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경험되는 한 현상일 뿐이다. 중요한 건 공안 타파 후에도 좌선 수행은 부단히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 삶 전체가 공안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현성공안이라고 한다.

이런 목조선을 완성시킨 사람이 《종용록》 공안 100칙 송고를 읊은 천동정각이다. 목조선에서의 ‘묵’이란 몸을 부동의 자세로 바로잡는 것이고, ‘조’란 이 부동자세를 통해서 생각의 흐름과 감정의 기복을 관찰하는 것이다.

천동정각의 목조선 수행법은 달마대사의 면벽 수행에 근원을 둔 대제자인 수행법으로서 좌선 그 자체를 강조한다. 이런 목조선 수행법의 정수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종용록》이다.

대혜종교의 간화선 수행체계 영향권에 있는 우리나라 선가에서는 목조선이라는 대혜종교의 주장이 이미 오래전부터 정설로 받아들여져 내려온다. 이런 실정서 《종용록》은 선 수행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위해 꼭 필요한 책이다.

지현 스님은 “손으로 A4 규격 노트에 2천여 개의 원고를 똑박똑박 써내려가며 손가락이 마비된 적도 있었습니다. 선어(禪語)를 한 글자 한 글자 해석해 내는 모든 과정은 깨달음으로 가는 목숨 건 사투였을 정도로 고된 여정이었습니다.”라며 “간화선은 깨달음을 강조하지만 목조선은 이미 깨달았다는 전제하에 지속적인 정진을 통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차이가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석지현 스님은 《벽암록》출간 후 이런 말을 했었다. “선 수행자들에게 이 책이 마지막 관문이지요. 이 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종용록》 출간과 함께 이 말은 다시 이렇게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선 수행자들에게 《종용록》이야말로 마지막 관문이다”라고.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역자 석지현 스님은?

스님은 13세 때 충남 부여 고관사로 출가했다. 196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詩) 부문에 당선돼 승려시인으로서 명성을 떨쳤다. 1973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그 후 명상에 심취해 인도 네팔 미국 예루살렘 티베트 등지를 오랫동안 방랑했다.

지현 스님은 3년 동안 인도서 지내며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스님은 이 곳에서 요가를 배우며 우리나라서 주로 하는 간화선 수행과는 조금 다른 명상 체험을 했다. 특히 크리슈나 무르티, 라즈니시, 목다난다, 이사가 닷타, 라마 크리슈나, 비베카 난다 등 힌두교 전통 구루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국내에 돌아와서 인도 성자들의 가르침을 소개하는 책을 한국 최초로 펴내기도 했다.

스님은 이 ‘방랑의 시절’ 동안 인도의 구석구석 여행하고 네팔의 히말라야, 부탄의 산길, 예루살렘의 불타는 사막을 여행했다. 미국서 5년간 살면서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다. 필라델피아서 만난 이슬람 수피의 가르침도 인상적이었다. 다람살라서 만난 달라이 라마의 스타일 합과 따스한 자비심에 큰 감동을 받았고, 달라이 라마의 스승인 트리찬 린포체를 남인도 후불리서 만나기도 했다.

지현 스님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세계 곳곳을 누비며 공부했다. 이 만행의 길에서 수행과 글쓰기에 필요한 지양분을 얻었다. 스님의 저술 활동이 불교 경전과 힌두교, 티베트 불교, 선어록 등 분야와 범위가 넓은 것도 바로 이런 만행 덕분이다. 스님은 독특하게도 1980년 송광사에 다시 출가했다. 출가 후 덕산 스님에게 선어록을 공부한 이래 거의 독학하다시피 해(선시 감상사전) 등을 집필했다. 편역서로는 《벽암록 전 6권》 《법구경》 《바기바드 기따》 《우파니샤드》 《반야심경》 《숫타니파타》 《불교를 찾아서》 《선으로 가는 길》 《영초보 불교 박사 되다》 《제일로 아파하는 마음-관음경 강요》 《행복한 마음 휴식》 등 다수가 있다.

《종용록》의 구성은?

각 책마다 7개 구조로 이뤄져 있다. ①시중(示衆), ②본칙(本則), ③본칙착어(本則著語), ④본칙평창(本則評唱), ⑤송(頌), ⑥송의 착어(頌著語), ⑦송의 평창(頌評唱)이 그것이다.

-시중은 해당공안을 소개하는 부분으로서 벽암록의 수시에 해당한다. 《벽암록》수시가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을 썼다면 《종용록》시중은 시중일관 잔잔한 흐름을 잃지 않고 있다. 《벽암록》에는 수시가 없는 공안이 여러 개지만 《종용록》에는 100개의 공안 전체에 100개의 시중이 붙어있다.

-본칙은 옛 공안으로서 이 책의 핵심이다. 만송

행수 스님이 옛 공안 가운데 중요한 공안 100개를 가려 뽑았다. 그런데 이 100칙 공안 가운데 29개 칙(29개의 공안)이 《벽암록》과 동일하다. 이 29개 칙에 대한 견해가 《벽암록》과 차이가 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때로는 《벽암록》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도 하고, 《벽암록》이 놓친 급소를 언급하기도 한다.

《종용록》의 이 100칙 공안은 책의 기본 골격을 이룬다. 그러므로 앞의 시중과 본칙착어, 본칙평창, 송, 송의 착어, 송의 평창 등은 모두 이 본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부차적인 셈이다. 이 100개 공안에는 경전 문구를 비롯해 제1칙 부처, 제2칙

달마대사로부터 개성이 다른 선승들의 선문답이 총망라돼 있다. 이 가운데에는 《벽암록》에는 없는 그 유명한 조주의 무자공안(趙州無字公案, 趙州狗子)도 있다.

-본칙착어는 일종의 총평이다. 《벽암록》착어가 기지와 익살로 넘친다면, 《종용록》착어는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종용록》의 이 답답함 속에 번뜩이는 예지와 절묘한 언어의 구사력이 돋보인다.

-본칙평창에는 본칙공안에 대한 보조설명과 배경이 기술돼 있다. 그러나 그 문장이 당·송·원대의 속어체로 쓰였기 때문에 기존 문장체 한문

해석만으로는 그 해독이 불가능하다. 이 점을 고려해 별권으로 《종용록 어휘사전》을 만들었다. 그리고 평창에는 고사 인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 읽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고사는 그 숨은 뜻과 출처를 일일이 밝혔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송(頌)은 100칙 공안 하나하나마다 붙인 천동정각의 공안시(公案詩)를 말한다. 천동의 이 공안시는 그 사상이 웅대하고 심원한 반면에 시정은 섬세하다. 시어도 투명한데 이 역시 수많은 고사가 인용된다. 고사와 시어의 이 절묘한 결합은 목조선시시의 절정인데 우리 예서 공안선시의 진수를 맛보

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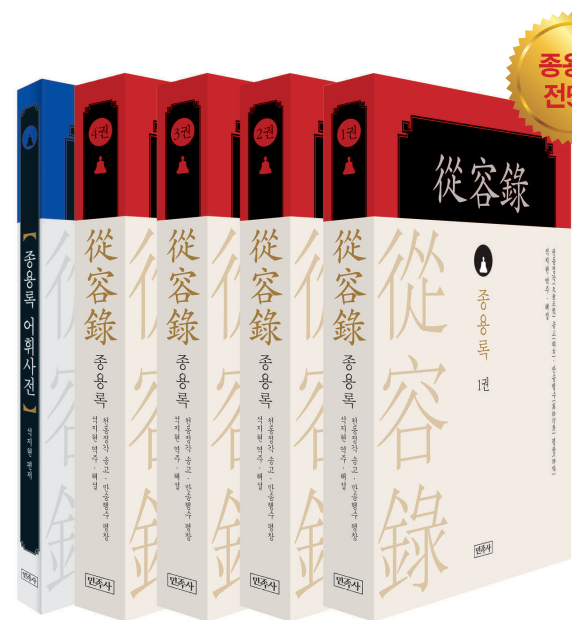
-송의 착어(頌著語)는 공안시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그 밑에 붙인 만송의 총평이다. 만송의 이 착어는 송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 만송의 이 착어가 때로는 눈부시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는데 이는 만송이 이 착어를 통해서 그 자신의 안목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읽는 이는 이를 놓쳐선 안 된다.

-마지막 송의 평창은 천동의 송에 대한 만송의 평창이다. 이 기본골격은 본칙평창과 크게 다르지 않다. 평창의 문장은 대체로 짧다. 그러나 이 짧은 문장 속에 너무나 많은 의미가 함축돼 있다.

민족사 주소 서울 중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파빌리온 1131호 전화 02.732.2403-4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석지현 스님, 《벽암록》에 이어 《종용록》 역주 해설본 출간!

‘지혜의 칼’ (벽암록)과 더불어 ‘훈훈한 봄바람’ (종용록)을 곁들이지 않으면 완벽한 선자(禪者)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두 공안집(公案集)을 통해 간화선(看話禪)과 목조선(默照禪)의 차이를 동시에 이해하면 수행이 더욱 깊어질 것이다. - 석지현 스님



종용록 전5권

칭기즈칸의 참모 아을초재가 최초로 간행!
중국의 역사와 사상을 총망라한 지혜의 보고!
국내 최초 완역 해설본!!

종용록

전5권 값: 185,000원 // 신국판 양장 // 민족사 펴냄 (남권 판매 불가)



벽암록 전5권

선어록의 최고봉! 선종문화의 총결산!
종문제일서(宗門第一書)!!

벽암록

전5권 값: 145,000원 // 신국판 양장 // 민족사 펴냄